

대순사상의 도통관에 있어서 실천수행의 문제*

윤 기 봉
대진대학교

〈요 약〉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다. 인간존재의 유한성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허무감이 인간의 운명이라면, 이것을 넘어서려는 또 다른 시도가 있다. 자기보존욕, 성욕, 명예욕, 소유욕, 권력욕 등 삶을 살아가는 의지로 표현되어져 외부로 표출되는 욕망이 그것이다.

종교 수행자들 또한 끝임 없이 욕망을 갈구한다. 물론 여기서의 욕망은 일반인이 가지는 그것과는 달리 구도(求道)에서의 완성을 뜻하는 욕망이다.

대순진리를 수행하는 자들 또한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도통(道通)에 대한 욕망이다. 욕망은 대순사상의 용어를 빌어 설명하면 원(冤)에 해당된다. 결국 대순진리를 수행하는 자들이 가지게 되는 보편적인 정서는 도통에 대한 원(冤)이 되는 것이다. 수도의 목적이 도통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정서인 것이다.

대순사상에서의 도통은 수도자들이 가지는 원에 대한 해원(解冤)에 해당된다. 도통은 천지인 삼계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이해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 바, 누구나 닦은 바에 따라 주어진 지는 것이 도통이기 때문에 도통을 이루지 못해 발생하는 원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도통과 관련한 선천의 한계성을 밝힘과 함께 도통을 이루지 못해 발생한 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도통을 이루지 못한 원을 해원함과 아울러 도통에 해원의 법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핵심 주제어: 욕망, 원(冤), 해원(解冤), 도통(道通)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대진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I. 서론

대순진리회의 종지(宗旨)는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도통진경(道通眞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음양합덕은 이상적 세계인 후천선경을 건설하기 위해서 분열하였던 음양을 하나로 통합하는 원리이다.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그것이 지니고 있는 덕(德)을 서로 합하여 이상세계를 실현하고자 한 것으로 음양이 지니고 있는 덕을 합치시켜 그로 인해 발생된 모든 부작용을 해소하고 완성을 이룬다는 문제 해결의 커다란 구도를 음양합덕은 제시하고 있다. 신인조화는 음양적 관계로 설명되는 ‘신과 인간의 조화를 통해 이상적 인간상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며, 해원상생은 ‘쌓였던 원(冤)을 풀고 상생(相生)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대순진리를 나타내는 대명사로 쓰여질 만큼 대순진리의 교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종지이다.¹⁾

도통진경은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의 모든 원리와 내용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완성을 이룬 결정체를 의미한다. 도통진경은 ‘도통’과 ‘진경’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으로 ‘도를 통한 참다운 경지’라는 의미를 지니는 대순진리회가 목표로 하는 이상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대순사상²⁾의 핵심적 교의가 진멸지경(盡滅之境)에 처한 선천의 현실을 극복하고 상서(祥瑞)가 무르익는 후천선경을 건설하는데 모든 진리체계가 집약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대순사상에서 이야기하는 도통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도통, 즉 보통의 인간이 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한다든지, 자연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통력을 지니는 일신을 위한 도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인 삼계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이해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을 통해 개인적 도통이 천지인 삼계로 확장되어짐을 보여준다. 그리고 대순사상의 도통이 선령신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것을 통해 도통과 관련한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도통관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발견되는 부분이다.

대순진리회에서 수도하는 수도인들은 수도의 궁극적 지향점, 즉 목적을 도통에 두고 있

1) 대순종학교재연구회, 『대순사상의 이해』(포천: 대진대학교 출판부, 2003), 140-164쪽 참조.

2) 대순사상은 대순진리회의 일련의 종교사상을 총칭하는 것으로, 강중산(薑中山: 姜一淳, 1871-1901) 상제를 종교적 연원으로 하여 정산(鼎山: 趙哲濟, 1895-1958), 우당(牛堂: 朴漢慶, 1917-1996)으로 이어지는 사상체계를 의미한다. 1917년 2월 10일(음력) 증산으로부터 종통계승의 계시를 받게 된 증산은 1925년 전북 구태인(舊泰仁) 도창현(道昌峴)에 도장을 건설하고 종단 무극도(無極道)를 창도함과 아울러 증산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여 신앙의 대상으로 받들게 하였다. 그리고 종교사상의 부분에서는 증산의 천지공사 사상을 ‘종지(宗旨)’로 집약하고 있다. 우당은 정산이 화친하기 전인 1958년 2월 하순경에 정산으로부터 총도전(總道典)으로 임명되어 유명으로 종통을 계승하게 된다. 정산으로부터 유명으로 종통을 계승하게 된 우당은 1969년 4월에 종단 대순진리회를 창설함으로써 새로운 종단의 출범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 역사는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다. 도통은 인간 중심의 개념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서적인 측면에 주목해서 도통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존의 연구들은 ‘도통’과 ‘진경’의 관계에 집중한 경향이 짙다. 종지 중 하나인 ‘도통진경’에 치중한 결과인 듯하다. 연구자는 이 문제에 착안하여 도통을 인간이 지니는 정서적인 측면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도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대순진리를 수행하는 자들이 가지게 되는 보편적 정서로서의 원(冤)을 인간의 욕망과 연결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대순진리를 수행하는 자들이 가지는 원이 도통에 대한 원임을 통해, 결국 도통이라는 것이 수행자들이 가지는 원에 대한 해원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도통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行)이 요구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보편적 정서로서의 욕망과 원(冤)

『예기』(禮記)는 사람의 감정을 일곱 가지로 나누고 있다. 칠정(七情)이라고 하는 것으로 희·노·애·구·애·오·욕(喜·怒·愛·懼·哀·惡·欲)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원을 발생론적인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 인간의 보편적 정서로서의 원은 칠정 중 어떠한 감정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아마도 욕(欲)의 감정이 아닐까한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다. 욕망이란 무언가를 좋아하고 바라면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내면적인 상태라 볼 수 있다.³⁾ 욕망(慾望, desire)은 애매하고 다의적이며 양의적으로 채색되어 있다. 우선 욕망이라는 용어 자체부터가 그러하다. 예컨대 우리말에서나 외국어에서나 ‘욕망’이라는 말에서는 어쩐지 좋지 않은 것이 연상되는 것 같다. 욕심쟁이, 욕심덩어리, 욕심에 눈이 멀다, 탐욕, 정욕, 육욕, 수면욕, 소유욕, 권력욕 등의 말에서 우리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욕망을 단지 부정적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편견이다. ‘욕’에도 지식욕이라는 훌륭한 것이 있고, ‘망’에도 희망, 대망이라고 하듯이 긍정적인 것들이 많다. ‘욕망’은 생명의 증거이며, 일체의 생명활동·생산활동의 원천이다.⁴⁾

욕망한다는 것, 그것은 일단 우리가 살아 있다는 증거이다. 오직 살아 있는 것들만이 욕망하며,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할수록 욕망은 그만큼 부풀어 오른다. 인간이 경험하는 삶의 한가운데 욕망이란 것이 자리잡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누구도 욕망으로부터 충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욕망에는 완전한 만족이 결코 있을 수 없다. 욕망이 만족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3) 권석만, 『욕망의 자각과 조절』,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서울: 운주사, 2008), 187쪽.

4) 김기곤, 『욕망의 인간학』(부산: 세종출판사, 1997), 16쪽.

그것은 항상 부분적·대리적인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곧 잊달아 새로운 욕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이 지니는 욕망에 대한 불만족의 결과는 다양한 형태의 원(怨)과 한(恨)등으로 나타난다. 먼저 원과 한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은은 “한이 착한 마음 씨와 그에 상응하는 복이 따라 오지 않을 때에 생기는 수동적인 의미를 지닌다면, 원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려는 의지가 타인의 의지와 마찰을 빚을 때에, 그 타인의 의지에서 나의 의지가 꺾이게 될 때에 원이 생기는 것”⁵⁾이라고 하였으며, 이어령은 “원은 곧 주로 타자에 대한 것 또는 자기밖에 있는 무엇인가에 대한 감정이며, 한은 자기자신에게 향한 마음이며, 자기 내부에 쌓여가는 정감이다”⁶⁾라고 하였다. 원이 대상지향적이며 대타적(對他的)임에 반해, 한은 대자적(對自的)인 감정으로 좌절의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이처럼 인간의 욕구 불만의 상태에서 발생하는 원, 한과는 달리 증산은 원(冤)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욕망에 접근한다. 『설문』에 “원은 구부리다의 뜻이다. 一과 兎로 이루어져 있다. 토끼가 덮개에 덮여 있어서 달릴 수 없으므로 더욱 구부리고 꺾이게 된다.”⁷⁾라 하고 있다. 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토끼가 움직이려는데 틀(一)에 갇혀있는 것을 통해, 뜻을 이루려는데 외부의 제약에 의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능동적인 원과 둘째, 토끼가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틀이 조여오는 것을 통해, 오행이나 누명을 덮어 쓰는 데서 오는 수동적인 원, 그리고 셋째, 토끼가 자신의 자유로움을 방해하는 틀을 원망하는 것을 통해, 뜻을 이루려는데 방해되는 대상을 미워하는 공격적인 원으로 나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冤)에는 한탄의 정서인 한(恨)과 원망의 정서인 원(怨) 그리고 복수하고자 하는 척(慝)의 정서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보다 강한 상태의 정서가 원(冤)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다양한 원의 역사로 점철된다.

증산은 그의 언설에서 요의 아들 단주가 원의 역사의 처음이라고 밝히고 있다.⁸⁾ 단주는 그의 아버지 요가 순에게 천하를 물려주어 제위를 계승하지 못하자 원을 품게 되었는데,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이 박히고 퍼져서 천지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다. 동시대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원을 품을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증산은 천하를 물려받지 못해서 발생하게 되는 단주의 원을 원의 역사의 처음으로 설정해 놓은 듯하다. 그리고 서양인 이마두가 동양에 와서 지상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나, 유교

5) 고은, 『한의 극복을 위하여』, 『恨의 이야기』(서울: 청노루, 1984), 44쪽.

6) 이어령, 〈푸는 문화 신바람의 문화〉, 《중앙일보》, 1982.9.23일자.

7) 『설문』, 屈也, 從一兎 兎在一下不得走 益屈折也.

8)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 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고 하셨도다(공사 3-4).

의 폐습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원을 품게 되었다고 증산은 말하고 있다.⁹⁾ 이 외에도 역사를 거치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남성과 여성, 지배자와 피지배자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원은 발생하였다.

원의 근간에는 작든 크든 관계없이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즉, 원(冤)의 발생에는 ‘욕망’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인바, 원은 욕망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진 결과 나타난다는 것이다.¹⁰⁾

증산은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교법3-24)라고 한 그의 언설에서 유일하게 ‘욕망’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이 가지게 되는 욕망을 무조건적인 금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욕망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¹¹⁾ 나아가 긍정적인 측면의 욕망과 부정적인 측면의 욕망으로 구분짓고 있다. 증산은 “우리의 일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 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 전 명숙이 거사할 때에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賤人)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마음을 두었으므로…”(교법1-2)라는 전명숙의 고사를 통해 긍정적 측면의 욕망을 설명하고 있다. 인간이 품게 되는 서원(瑞願)의 의미로 욕망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욕망은 대순사상의 용어를 빌어 설명하면 원(冤)에 해당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冤)은 원(怨), 한(恨), 척(憾)의 감정이 포함된 보다 포괄적인 성격을 지닌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서원으로서의 원의 감정이다. 원한이 생긴 배경에는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투영되어 있는 바, 여기엔 서원했음에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의 감정 또한 포함되어 있다. 원의 기저에 서원의 정감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에는 서원에서 시원(始原)하는 강한 열망의 정감과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원, 한, 척의 감정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결국 대순진리를 수행하는 자들이 가지게 되는 보편적인 정서는 서원의 의미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도통에 대한 원(冤)이 되는 것이다. 수도의 목적이 도통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정서인 것이다.

Ⅲ. 해원으로서의 도통

대순진리를 신앙하는 자들이 지니는 보편적인 정서를 도통에 대한 원에 둔다면, 도통은

9) 상제께서 어느 날 김형렬에게 가라사대 “서양인 이마두(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교운 1-9).

10) 윤재근, 「대순사상에 있어 인간의 욕망에 관한 해석」, 『종교교육학연구』 제31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68쪽.

11) 나의 일은 남이 죽을 때 잘 살자는 일이요. 남이 잘 살 때에 영화와 복록을 누리자는 일이니라(교법1-6).

해원(解冤)에 해당된다. 먼저 도통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으로 대순사상에서 이야기 하는 도(道)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면, 『대순지침』은 “도가 음양이며 음양이 이치이며, 이치가 곧 경위며 경위가 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¹²⁾라고 하였다. 도를 음양으로 간주하는 것을 통해 우주만물의 근원을 도로 보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인간도 우주본연의 법칙에 따라 존재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아 천성(天性)인 인간 본성(本性)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순지침』에서는 도의 성질에 대해 “도란 부단불식(不斷不息)하여 무형무적(無形無跡)하고, 무성무취(無聲無臭)하지만 공명정대하여 무위무가(無爲無假)하며, 무편무사하여 두과지리(豆瓜之理)와 같다”¹³⁾고 하였다. 도라는 것은 끊어짐이나 썩이 없고, 그 형태나 자취가 없으며, 소리와 냄새도 없으며, 거짓됨이나 편벽됨 그리고 사사로움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도란 영원한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대순사상에서는 도를 신도(神道)로 규정하여 도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내리고 있다.

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神道を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예시 73).

신도는 현묘불칙(玄妙不則)한 대소의 일을 모두 이루는 것으로 무위로 조화됨을 보여주는 것을 이룸이다. 이와 함께 『대순지침』에 “우리의 도는 신도(神道)임을 누차 말하였으나 깨닫지 못하는 신도와 인위적(人爲的)인 사도(邪道)를 구별하지 못한 까닭이다.”¹⁴⁾라고 하였다. 인위적인 사도란 인간의 욕심과 편견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일정부분 진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천리를 거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도는 무욕청정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며, 우주의 운행원리마저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신도는 인간과 신이 상호 직접적인 감응관계에 있다는 도에 대한 독특한 개념이다. 신도란 인간이 신의 뜻을 존중해야 하며, 인간의 행동에는 신명이 같이 한다는 개념으로 신위(神爲)의 차원에서 인간의 본성을 되찾게 해주는 것이며, 나아가 우주질서를 정립케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된 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통을 살펴보면, 도통은 일반적으로 ‘사물의 오묘한 이치를 깨달아서 통하는 것’¹⁵⁾으로 설명되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전경』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옛적부터 상통천문(上通天文)과 하달지리(下達地理)는 있었으나 중찰인의(中察人義)는 없었나니 이제 나오리라(교법3-31).

12)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18쪽.

13) 위의 책, 91-92쪽.

14) 위의 책, 39쪽

15) 양주동 감수, 『국어대사전』(서울: 善一文化社, 1977), 532쪽 참조.

대순사상에서의 도통은 천지인 삼계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이해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의 구절은 대순사상에서 제시되는 도통의 총체적인 의미를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도 있다. 『전경』은 도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어느날 상제께서 교운을 굳건히 하시고자 도통에 관해 말씀이 계셨도다. 「지난 날에는 도통이 나지 아니 하였음은 도가에서 도통에 힘을 기울였으나 음해를 이기지 못하여 성사를 이룩하지 못했도다. 금후에는 도통이 나므로 음해하려는 자가 도리어 해를 입으리라」고 하셨도다.

증산은 선천세계는 도통을 이루지 못한 세상이며, 도통을 이루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를 ‘음해’(陰害)에 두고 있다. 도통을 하려는 자가 음해를 받아 도통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후에는 음해하는 자가 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통해 금번에 나타나는 도통은 상생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우선이며, 상생의 원리에 바탕한 도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해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도통부재(道通不在)에 대한 독특한 시각과 함께 상생의 원리를 강조하는 대순사상의 도통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순사상에서 이야기하는 도통은 누구나 닦은 바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므로 도통을 이루지 못해 발생하는 원이 나타나지 않는다.

공자는 七十二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 오백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교운1-34).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준다’는 것은 선천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기도 하다. 도통과 관련한 선천종교의 한계성을 밝힘과 함께 도통을 이루지 못하여 발생한 원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증산은 선천세상의 도통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누구나 수도에 따라 도통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통해 도통을 이루지 못한 원한을 해원하고 있다. 도통에 해원의 법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대순사상에서는 도통과 관련하여 독특한 도통관을 보여준다. 도통이 선령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대순사상에 있어 인간은 조상 선령신들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공력의 결과로 하늘로부터 얻어낸 존재로 설명된다.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르치시기를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이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선령신들은 육십년 동안 공에 공을 쌓아 쓸만한 자손 하나를 타 내되 그렇게 공을 드러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령신들도 많으니라. 이 같이 공을 드러 어렵게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꿈같은 한 세상을 어찌 잠시인들 헛되게 보내리오」 하셨도다(교범2-36).

인간은 천계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관계체이며, 홀로 존재하는 단독자는 아니다. 즉 인간은 독자적인 존재가 아닌 조상 선령신들의 노력과 천지로부터 얻어낸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인간이외의 주변과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는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주위에 대한 존중과 보은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도덕적 가치에 기반을 둔 인간관념을 형성하고 있다.¹⁶⁾ 이러한 인간관념을 바탕으로 도통과 선령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공우가 어느날 상제를 찾아뵈옵고 도통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니라. 상제께서 이 청을 꾸짖고 가라사대, ‘각 성(姓)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각기 닭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셨도다(교운1-33).

도통은 각 성(性)의 선령신(先靈神)들이 참여하여 판단을 내린다는 사실을 통해 선령신들이 가지는 자손에 대한 관심과 함께 도통을 위해서는 선령신을 섬기는 일 또한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주고 있다. 선령신에 대한 보은적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각기 닭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라는 부분을 통해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도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통은 올바른 삶의 태도를 지향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며, 도통을 성취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은 선천세계를 통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IV. 도통실현을 위한 실천수행

도통과 관련하여 『대순진리회 요람』은 “무자기(無自欺)를 근본(根本)으로 하여 인간(人間) 본래(本來)의 청정무구(淸淨無垢)한 본성(本性)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닦고 성품을 연마(鍊磨)하여 대순진리(大巡眞理)의 음양합덕(陰陽合德) · 신인조화(神人調化) · 해원상생(解冤相生) · 도통진경(道通眞境)을 체인체득(體認體得)하기 위하여 힘써 닦아 정성(精誠)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도가 곧 나(道卽我)요 내가 곧 도(我卽道)라는 경지를 바르게 깨달아 환하게 도(道)에 통하게 되면 삼계(三界)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고 우주 전체의 이치를 온갖 정성(精誠)을 다하여 깨달음으로써 어떤 것이든 가능하지 않은 일이 없게 되는데, 이것을 일컬어 영통(靈通) 또는 도통(道通)이라고 한다”¹⁷⁾라고 하였다. 도즉아 아즉도의 경지를 체득한다 함은 만유의 이치와 경위를 살피고 그것을

16) 윤재근,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130쪽.

17)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69), 9쪽.

인사(人事)와 일체화된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도통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도의 지침인 것이다.

수도에는 행(行)이 요구된다.

사람이 옳은 말을 듣고 실행치 않는 것은 바위에 물 주기와 같으니라(교범1-22).

안다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표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음(陰)의 상태인 것이다. 행하는 것은 지(知)한 것이 외부로 표출되어지는 것이다. 양(陽)의 상태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는 것(知)을 실천하는 것(行)을 수도(修道)라 명명할 수 있다.

수도란 자의식을 가진 인간이 능동적인 심신의 단련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는 방법이다. 이러한 수도는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는 바, 그 목적은 도통이다.

『대순진리회요람』에서 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수도(修道)는 심신(心身)을 침잠추밀(沈潛樞密)하여 대월(對越) 상제(上帝)의 영시(永侍)의 정신(精神)을 단전(丹田)에 연마(鍊磨)하여 영통(靈通)의 통일(統一)을 목적(目的)으로 공경(恭敬)하고 정성(精誠)하는 일념(一念)을 끊임없이 생각(生覺)하고 지성(至誠)으로 소정(所定)의 주문(呪文)을 봉송(奉誦)한다.¹⁸⁾

수도란 마음과 몸을 침착(沈着)하고 잠심(潛心)하여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정신(精神)을 모아서 단전(丹田)에 연마(鍊磨)하여 영통(靈通)의 통일(統一)을 목적으로 공경(恭敬)하고 정성을 다하는 일념(一念)을 스스로 생각(生覺)하여 끊임없이 잊지 않고 지성(至誠)으로 봉축(奉祝)하여야 한다.¹⁹⁾

수도란 영원한 생명인 도에 바탕을 두고 그 도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즉 수도의 목적은 무자기(無自欺)를 통해서 자기자신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자기자신을 완성시킨다는 의미는 도즉아(道卽我) 아즉도(我卽道)의 경지에 도달하여 정신을 개벽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상제에 대한 대월영시(對越永侍)의 자세이다. 대월영시의 자세는 상제를 성(誠)·경(敬)·신(信)을 다하여 섬기는 자세를 의미한다. 여기서의 성경신은 수도의 삼요체(三要諦)에 해당하는 것인 바, 이와 관련하여 『대순진리회요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성(誠)은 도(道)가 곧 나요, 내가 곧 도(道)라는 경지(境地)에서 심령(心靈)을 통일하여 만화도제(萬化度濟)에 이바지 할지니 마음은 일신(一身)을 주관(主管)하며 전체(全體)를 통솔(統率) 이용(利用)하나니, 그러므로 일신(一身)을 생각하고 염려(念慮)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은 오직

18) 앞의 책, 18쪽.

19) 위의 책, 15-16쪽.

마음에 있는 바를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니 정성(精誠)이란 늘 끊임없이 조밀(調密)하고 틈과 험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컫는다.

경(敬)이란 심신(心身)의 움직임을 받아 일신상(一身上) 예의(禮儀)에 알맞게 행하여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신(信)이란 한마음을 정(定)한 바엔 이익(利益)과 손해(損害)와 사(邪)와 정(正)과 편벽(偏壁)과 의지(依支)로써 바꾸어 고치고 변(變)하여 옮기며 어긋나 차이(差異)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하나를 둘이라 앎고 셋을 셋이라 앎고 저것을 이것이라 앎고 앞을 뒤라 안하며 만고(萬古)를 통(通)하되 사시(四時)와 주야(晝夜)의 어김이 없는 것과 같이 하고 만겁(萬劫)을 경과하되 강하(江河)와 산악(山岳)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기약(期約)이 있어 이르는 것과 같이 하고 한도(限度)가 있어 정(定)한 것과 같이 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정성(精誠)하여 기대(企待)한 바의 목적(目的)에 도달(到達)케 하는 것을 신(信)이라 한다.²⁰⁾

수도는 인륜을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것이다. 성경신의 실천을 통할 때, 도통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수도의 궁극적 목적인 도통을 이룩하기 위한 수도법방으로 크게 기도(祈禱), 수련(修練), 공부(工夫)와 포덕, 교화 등을 들고 있다. 기도, 수련, 공부, 포덕, 교화 등은 증산으로부터 종통을 계승한 정산이 수도공부의 법제로 갖추어놓은 것을 정산으로부터 종통을 계승한 우당이 도통에 이를 수 있는 실천수행의 법방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도는 대순진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앙의 대상에게 기원하는 의식으로, 평일기도와 주일기도로 구분된다. 주일은 5일마다 있으며 월력의 갑(甲)·기(己)일로 정해진다. 평일기도는 매일 진(辰), 술(戌), 축(丑), 미(未)시에 소정의 주문을 각자의 집이나 또는 소정의 장소에서 봉송하는 것이다. 주일 기도는 5일마다 오는 갑(甲)·기(己)일의 자(子), 오(午), 묘(卯), 유(酉)시에 소정의 주문을 각 회실이나 회관에서 봉송하는 것이다.²¹⁾ 기도의 중요성과 관련해서는 증산의 언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증산은 그의 언설에서 “내가 부안 지방 신명을 불러도 응하지 않으므로 사정을 알고자 부득이 그 지방에 가서 보니 원일이 공부할 때에 그 지방신(地方神)들이 호위하여 떠나지 못하였던 까닭이니라. 이런 일을 볼진대 공부함을 어찌 등한히 하겠느냐”(교운 1-63)라고 하고 있다. 당시는 기도라는 용어보다는 공부라는 용어 속에 기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던 바, 증산이 지방 신명을 불러도 공부하는 종도(원일)를 호위하기 위해 그 지방을 떠나지 못했다는 것을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다.

수련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의 지정이 없이 주문전체를 일독(一讀)한 후에 태을주(太乙呪)를 계속 봉송한다.²²⁾ 수련 시 태을주를 봉송하는 이유를 증산의 언설에서 찾아볼 수

20) 대순진리회 교무부(1969), 앞의 책, 16-17쪽 참조.

21) 대순종학교재연구회, 앞의 책, 219쪽.

22) 대순진리회 교무부(1969), 앞의 책, 18쪽 참조.

있다. 증산은 그의 언설에서 “충남(忠南) 비인(庇仁) 사람 김경혼(金京訢)은 五十년 공부로 태을주(太乙呪)를 얻었으니 그 주문을 신명으로부터 얻을 때에 그 주문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라는 명을 받았느니라”(교운 1-30)라 하였으며, “어느 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오는 잠을 적게 자고 태을주를 많이 읽으라. 그것이 하늘에서 으뜸가는 임금이니라.”(교운 1-60)라고 하여 태을주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공부는 시학(侍學)과 시법(侍法)공부를 들 수 있다. 『전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도주께서 이해(정유년, 1957) 11월에 도인들의 수도공부의 설석을 명령하고 공부는 시학(侍學) 시법(侍法)으로 구분케 하고 각 공부반은 36명으로 하며 시학은 5일마다 초강식(初降式)을 올리고 15일마다 합강식(合降式)을 올리며 45일이 되면 봉강식(奉降式)을 행하게 하고, 시법은 시학공부를 마친 사람으로서 하되 강식을 거행하지 않고 각 공부의 인원은 시학원(侍學員) 정급(正級) 진급(進級)의 각 임원과 평신도로서 구성하고, 시학원은 담당한 공부반을 지도 감독하고 정급은 시간을 알리는 종을 올리고 진급은 내빈의 안내와 수도처의 질서 유지를 감시하여 수도의 안정을 기하게 하고, 시학관(侍學官)을 두어 당일 각급 수도의 전반을 감독하도록 하셨도다(교운2-62).

1957년 11월에 행해진 시학과 시법공부의 방법과 의식에 관한 언설은 정산 종교활동의 백미에 해당한다. 1909년 증산의 화친은 신앙인들에게 ‘도통’이라는 경지를 추구하게 하였으므로 신앙인들에게 본질적인 수행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정산이 제시한 시학·시법공부는 신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을 다진 것이라 할 수 있다.²³⁾

시학공부는 여주도장에서 시행되는데 매일 1반씩 교체된다. 1반은 3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열(列)로 하고 1열은 12인으로 한다. 3열의 전열(前列)은 시학원 1인, 정급 2인, 진급 3인, 회원 6인으로 하고 제2열은 남자수도인 12인으로, 제3열은 여자수도인 12인으로 한다.

방(房) 4개에 1인이 1시간씩 공부를 알리는 종소리에 맞추어 교대하여 공부하되 전열은 1일에 2시간씩, 제2, 3열은 1일에 3시간씩 공부한다.

공부주문(工夫呪文)으로, 전열은 칠성주(七星呪), 운장주(雲長呪)이고, 제2, 3열은 태을주(太乙呪), 기도주(祈禱呪), 도통주(道通呪)로 한다.

강식(降式)은 초강(初降), 합강(合降), 봉강(奉降)으로 구분하되 5개반의 공부가 끝나면 초강식을 올리고, 15개반의 공부가 끝나면 합강식을 올리고, 45개반의 공부가 끝나면 봉강식을 올린다.²⁴⁾

23) 공부와 관련하여 “천지의 조화로 풍우를 일으키려면 무한한 공력이 드니 모든 일에 공부하지 않고 아는 법은 없느니라. 정북창(鄭北窓)과 같은 재주로도 입산 삼일 후에야 천하사를 알았다 하느니라”(교운 1-35)한 증산의 언설은 정산이 내놓은 공부들이 도통을 이루기 위한 길잡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학 공부를 마친 반원(班員)이 시범공부를 할 수 있다.

시범 공부는 강식을 포함한 시학 공부를 마친 제1반부터 차례대로 진행이 된다. 공부 반 편성은 시학반에 준하며 매일 1반씩(36명) 교체한다.

다음으로 포덕(布德)과 교화(教化)를 살펴보면, 먼저 포덕은 ‘덕(德)을 전한다’ 또는 ‘덕을 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원래 포덕은 한울님의 덕을 세상에 편다는 뜻으로 천도교에서 전도(傳道)를 이르는 말로 쓰여졌다.²⁵⁾ 하지만 대순사상에서는 “포덕은 덕을 편다는 말이니 겸허(謙虛)와 지혜의 덕으로 사(私)로 인하여 공(公)을 해치지 말고 보은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²⁶⁾라고 하여 포덕을 ‘덕을 편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순지침』에 ‘덕은 도를 닦는 근본(根本)’이라 하였고,²⁷⁾ 또한 ‘덕은 곧 인성(人性)의 신맥(新脈)이며, 신맥은 정신(精神)의 원동력이므로 이 원동력은 윤리도덕(倫理道德)만이 새로운 맥(脈)이 될 것이다’²⁸⁾라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포덕은 증산이 정(定)하여 놓은 우주 만유의 법칙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이 된다. 『대순지침』에 “포덕이란 상제님께서 광구천하(匡救天下)와 광제창생 하시려고 하신 9년간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널리 알려 지상낙원의 복을 받게 하는 일이다”²⁹⁾라고 하였으며, ‘해원상생 대도의 참뜻을 전하는 것이 포덕’³⁰⁾이라 하였다. 광구천하의 진리로 구제창생키 위한 대인접촉이 포덕인 바³¹⁾, 미래의 지상선경세계(地上仙境世界)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알려 주는 일³²⁾인 것이다.

포덕에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덕을 편다’는 뜻 이외에 다른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상제께서 어느날 류 찬명(柳贊明)과 김 자현(金自賢) 두 종도를 앞세우고 각각 십만인에게 포덕하라고 말씀하시니 찬명은 곧 응낙하였으나 자현은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상제의 재촉을 받고 비로소 응낙하느니라. 이때 상제께서 「내가 평천하할 터이니 너희는 치천하 하라. 치천하는 오십년 공부이니라. 매인이 여섯명씩 포덕하라」고 이르시고 또 「내가 태을주(太乙呪)와 운장주(雲長呪)를 별써 시험해 보았으니 김병옥의 액을 태을주로 풀고 장 효순의 난을 운장주로 풀었느니라」고 말씀하셨도다(행록3-31).

24) 초강식은 180명(36명×5개반)으로 하오 11시에 첫반을 시작으로 본전(영대)4층에서 거행하고 합강식은 5개반씩 3번의 초강식을 마치면 15개반(540명)으로 합강식을 거행한다. 합강식을 세 번 올린 후 45개반(1호=1,620) 전원이 봉강식에 입한다.

25)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서울: 두산동아), 6590쪽.

26)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19쪽.

27) 위의 책, 76쪽 참조.

28) 위의 책, 44쪽 참조.

29) 위의 책, 21쪽 참조.

30) 같은 곳 참조.

31) 같은 곳 참조.

32) 위의 책, 76쪽 참조.

증산은 종도들에게 포덕을 강조하면서 평천하(平天下)와 치천하(治天下)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포덕이 가지는 의미가 평천하와 치천하와의 관련성에 그 바탕을 두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평천하는 증산이 행한 9년간의 천지공사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³³⁾ 50년 치천하 공부는 정산(鼎山 趙哲濟, 1895-1958)이 행한 50년의 종교활동의 전반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³⁴⁾

50년 치천하 공부는 제민(濟民)과 많은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³⁵⁾ 이것은 종단의 창립과 더불어 현실 속에서 포덕을 실천함으로써 증산의 인신강림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펴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50년 치천하공부가 단순히 정산의 공부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정산이 화천하면서 그 종통을 우당(牛堂 朴漢慶, 1917-1996)에게 유명으로 계승하게함으로써 그 공부는 대순진리회를 창도한 우당의 종교적 활동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포덕은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양 원리인 대도의 이치를 바르게 알려줌”³⁶⁾으로써 “인도(人道)를 선동하여 윤리도덕의 상도(常道)를 바로 이룩하는 것”³⁷⁾으로써 후천선경 건설의 중요한 실천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포덕의 의의는 해원이념의 실천과 함께 그 주체로서의 인간이 천지공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다.³⁸⁾ 인간이 천

33) “포덕이란 상제님께서 광구천하(匡救天下)와 광제창생 하시려고 하신 9년간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널리 알려 지상낙원의 복을 받게 하는 일이다”(『대순지침』, 21쪽)에서 포덕의 의의와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34) 50년의 공부활동은 정사년에 상제의 삼계대순의 진리를 감오(感悟)하신 때를 기점으로 정유년에 화천하실 때까지 행한 일련의 종교활동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도주께서는 九년의 공부 끝인 정사년에 상제의 삼계 대순(三界大巡)의 진리를 감오(感悟)하시도다(교운 2-6).

도주께서 정유년 十一月 二十一日 자시부터 무술년 三월 三일까지 도장에서 불면 불휴하고 백일도수를 마치시니라. 五일에 심히 괴로와 하시므로 한의사와 양의사를 불러왔으되 「때가 늦었도다」고 이르시니라. 도주께서 이튿날 미시에 간부 전원을 문 밖에 시립케 한 후 도전 박 한경을 가까이 하고 도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도의 운영 전반을 맡도록 분부를 내리고 「오십년 공부 종필(五十年工夫終畢)이며 지기 금지 사월래(至氣今至四月來)가 금년이다. 나는 간다. 내가 없다고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행하여 오던 대로 잘 행해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문밖을 향하여 「도적놈」을 세 번 부르시더니 화천하시니라. 무술년 三월 六일 미시요. 양력으로 一九五八年 四월 二十四일이요. 수는 六十四세로다(교운 2-66).

35) 도주께서 기유년부터 신사년에 이르기까지 도수에 의한 공부와 포교에 힘을 다하시니 신도의 무리가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니라. 그러나 일본이 이차 대전을 일으키고 종교단체 해산령을 내리니 도주는 전국각지의 종도들을 모으고 인덕도수와 잠복도수를 말씀하시며 「그대들은 포덕하여 제민하였도다. 각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 처자를 공양하되 찾을 날을 기다리라.」 이 선포 후에 도장은 일본 총독부에 기증되니 도주께서는 고향인 회문리로 돌아가셨도다(교운 2-43).

36) 대순진리회 교무부(1984), 앞의 책, 19쪽.

37) 위의 책, 19쪽.

38) 人生世間何滋味 曰衣 曰食 衣食然後 曰色也 故至於衣食色之道 各受天地之氣也 惑世誣民者 斯人取物者 亦受天地之氣也 事之當旺在於天地 必不在人 然無人無天地 故天地生人用人 以人生 不參於天地用人之時 何可曰人生乎(교법 3-47)

지공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천지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³⁹⁾ 존재체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극대화시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포덕이 의미하는 바는 증산이 짜놓은 천지공사에 인간이 직접 참여하여 증산의 의지와 이념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작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포덕은 증산, 정산, 우당의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후천선경건설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해원이념의 대표적인 실천방안이 되는 것이다.

교화는 가르치고 이끌어서 선(善)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의미로 포덕을 위한 언어행위이다. 교화를 할 때에는 “해원상생·보은상생이 남에게 착을 짓지 말고 남을 잘되게 하는 진리이니, 화합·단결·상부상조를 강조하고 그것을 실천토록 교화하라”⁴⁰⁾고 하여 “교화로써 도를 심심화(心深化)하고 수훈(垂訓)의 진법(眞法)을 행동 실천하여야 함”⁴¹⁾을 강조하고 있다.

대순진리회의 교화는 구천상제의 대순하신 진리를 가르쳐서 마음의 경위와 이치를 밝게 하여 진리에 통하는 도인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순진리회의 교화는 교화 과정에서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효과를 보면 타화(他化)와 자화(自化)현상으로 구분될 수 있다. 대순진리를 전하는 자가 대순진리를 배우는 자의 마음을 고쳐 참 인간의 모습으로 변모시킬 때 이것을 타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진리의 교화를 할 때 교화의 힘이 진리를 전하는 자를 점점 더 참 인간의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자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⁴²⁾ 그러므로 교화자는 교화를 함에 있어 언행이 일치되도록 해야하며, 말재주보다 행동과 처신으로 상대를 감화시키는 교화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즉 인정이 넘치고 신뢰가 감돌아 허세를 부리지 말아야 하며, 안정된 장소에서 편안한 시간을 택하여 부담없는 대화를 통해 진리도통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교화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V. 결 론

인간은 욕망한다. 그리고 욕망은 열정이다. 욕망한다는 것은 살아있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다. 살아있는 것들만이 욕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 수행자들 또한 평범한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욕망을 갈구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욕망은 일반인들이 가지는 욕망과는 궤를 달리한다. 일반인들이 욕망하는 그것과

39)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교법2-56).

40) 대순진리회 교무부(1984), 앞의 책, 27쪽.

41) 위의 책, 22쪽.

42) 대순종학 교재연구회, 앞의 책, 209-210쪽.

는 달리 수행자들이 가지게 되는 욕망은 구도(求道)에서의 완성을 뜻하는 욕망이다.

욕망을 대순사상의 용어를 빌어 표현하면 원(冤)으로 설명될 수 있다. 원(冤)의 정서에는 원(怨), 한(恨), 척(慼)의 감정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원에는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투영되어 있다. 여기에는 서원(瑞願)했음에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의 감정 또한 내재되어 있다. 원(冤)의 정서의 기저에는 서원의 정감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서원했음에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의 기저에는 서원에서 시원하는 강한 열망의 정감이 내재되어 있는 바, 대순진리를 신앙하는 자들이 가지게 되는 보편적인 정서는 서원의 의미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도통에 대한 원(冤)이 되는 것이다.

대순진리를 수행하는 자들은 도통에 대한 강한 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도통에 대한 증산의 해석이 상당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증산은 선천세상에서 도통이 없었던 주된 이유를 음해(陰害)에서 찾고 있다. 도통을 하려는 자가 음해를 받아 도통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음해하는 자가 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후에 나타나는 도통은 상생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우선임을 피력하고 있다. 선천 도통부재에 대한 독특한 시각과 함께 대순사상에서의 도통이 상생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도통이 선령신과의 밀접한 관련속에 있다는 독특한 도통관을 제시함으로써 도통을 위해서는 선령신에 대한 보은적 태도를 견지하여 선령신을 잘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누구나 수도여하에 따라 도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통해 수행자들로 하여금 도통(道通)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하였다. 결국 도통이라는 것은 수행자들이 원했던 것에 대한 해원(解冤)이 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수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도통에 두고 있다. 수도란 자의식을 지닌 인간이 능동적인 심신의 단련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는 방법으로 무자기(無自欺)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행(行)이 전제되는 바, 도통을 이루기 위한 수도방법으로 크게 기도(祈禱), 수련(修練), 공부(工夫)와 포덕, 교화 등을 들고 있다. 상제에 대한 대월영시의 자세를 바탕으로 기도, 수련, 공부, 포덕, 교화 등을 성경신을 다하여 실천할 때, 도통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도, 수련, 공부, 포덕, 교화 등이 증산으로부터 종통을 계승한 정산에 의해 모든 수도공부의 법제로 갖추어지게 된 것을 유명으로 종통을 계승한 우당에 의해 도통에 이를 수 있는 실천수행의 법방으로써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설문』.

『전경』.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고 은. 「한의 극복을 위하여」. 『恨의 이야기』. 청노루. 1984.

권석만. 「욕망의 자각과 조절」.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서울: 운주사. 2008.

김기곤. 『욕망의 인간학』. 부산: 세종출판사. 1997.

대순종학교재연구회. 『대순사상의 이해』. 포천: 대진대학교 출판부. 2003.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69.

양주동 감수. 『국어대사전』. 서울: 善一文化社. 1977.

윤재근. 「대순사상에 있어 인간의 욕망에 관한 해석」. 『종교교육학연구』. 제31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_____.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이어령. 푸는 문화 신바람의 문화. 중앙일보 1982.9.23일자.

원고접수 : 2012년 6월 5일/ 1차 심사 : 2012년 6월 22일/ 게재승인일 : 2012년 7월 18일

연구자소개 : 윤기봉

① 전공 : 인도철학, 종교학

② 관심영역 : 인도철학, 한국신종교

③ 주요논저 : <증산 강일순의 인권사상>, <증산의 수행체계에 있어서 성·경의 의미>, <종교안에서의 수행과 무자기의 상관성 의미 소고>, <증산사상에서의 근대성 해석문제 - 계급제도의 붕괴와 부의 재분배를 중심으로>

④ E-mail : yungb@daejin.ac.kr

Abstract

A Study on The Way of Personal Practice in Terms of Dae-soon Thought's Theory of Doe-Tong

Yun, Gibong

Daejin University

Human being is a creature with desire. Since finitude of human being and the sense of futility caused by it, is inevitable. There are attempts to overcome these 'destiny'. The desires for self-preservation, honor, possession, power and sexual desire. These are few of examples for desire which drives our lives. Many disciplinants also have desires. However their desires slightly differ from norman people. Disciplinants desire seek the truth. The disciplinants of Daesoon thoughts also have a great desire. And that also is to seek the true path. If we translate the word 'desire' in terms of Daesoo thoughts, it is called 'Won'(冤). So the main sentiment which Daesoon thoughts disciplinants have is the 'Won' to seek the truth. In Daesoon thoughts the truth is 'Hae-Won'(解冤). The fulfillment of desire. The state of 'Doe-Tong'(道通) is understanding all the truth of universe, and that can be done by everyone to try their best to seek the truth. Thus the 'Won' can not be created by not being able to reach the state of 'Doe-Tong'(道通). This shows the 'Limit of Past-world' and points out the fact about 'Won' that is created by not reaching the 'Doe-Tong'. This proves us that the principle of 'Hae-Won' is applied to 'Doe-Tong'

Key words : Desire, Won(冤), Hae-Won(解冤), Doe-Tong(道通)